

# 동진세미켄, 상반기 매출 869억원!

2002년에 비해 원재료 가격하락 ... 전자재료 종합 메이커로 도약 기대

동진세미켄(대표 이부섭)의 상반기 매출액이 8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동진세미켄에 따르면, 2003년 상반기 매출액은 86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002년에 비해 25% 증가한 45억원을 기록했다. 경상이익은 29억원, 당기순이익은 22억원이다.

매출 증가는 2002년에 비해 수입원자재 단가하락으로 인한 주요 원재료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특히, 발포제부문의 경우 약 90%이상을 수출해 환율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

**동진세미켄의 요약재무제표** (단위: 100만원)

| 구 분   | 2003(1H) | 2002    | 2001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유동자산  | 50,345   | 47,400  | 38,238  |
| 고정자산  | 152,957  | 152,228 | 156,472 |
| 자산총계  | 203,302  | 199,627 | 194,710 |
| 유동부채  | 89,276   | 84,105  | 71,090  |
| 고정부채  | 30,206   | 32,117  | 40,506  |
| 부채총계  | 119,482  | 116,222 | 111,596 |
| 자 본 금 | 18,800   | 18,800  | 18,800  |
| 자본총계  | 83,820   | 83,405  | 83,114  |
| 매 출 액 | 86,943   | 152,884 | 159,560 |
| 영업이익  | 4,518    | 5,350   | 8,184   |
| 경상이익  | 2,918    | 1,487   | 3,195   |
| 당기순이익 | 2,211    | 554     | 2,402   |

한편, 동진세미켄은 발포제부문에서 신공법인 Biuret 공법을 개발해 해외에 공장을 건설중에 있으며, 신공법으로 2003년 하반기에 발포제를 생산하게 되면 중국의 저가제품에 의해 잠식된 시장점유율 회복과 순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.

또한 동진세미켄은 5세대 TFT-LCD용 포토레지스트도 2002년 2/4분기 이후 양산공장을 본격 가동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중이며, 모바일용 초박막 액정표시장치의 감광재로 사용되는 Colored 레지스트는 2002년 9월부터 양산라인에 공급하고 있어 2003년 하반기부터 LCD용 액정배향막 등 신규매출을 예상하고 있다.

특히 첨단 모바일 장치의 시장확대와 반도체용 불화아르곤(ArF)레지스트 등 고기능성 전자재료의 신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, 동진세미켄은 2005년경 매출 5000억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동진세미켄은 전자재료 61%, 발포제 39%의 제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점차 전자재료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<박동환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8/28>